

# 영암군, 영등포구청서 '농부의 시장' 성료



영암군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청 앞 광장에서 '농부의 시장' 직거래장터를 개설해 운영했다. 영등포구청 농부의 시장은 영암

군을 포함한 10개 지자체가 교류협력 및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참여하는 순수한 농부와 도시민과의 만남의 장소인 직거래장터로 이날 영암

### 영암군, 황토고구마·대봉감 감말랭이 등 80여개 품목 선보여 약1천1백만원 수익

군은 약 80여개 품목의 농산물을 준비해 영등포구민과 상생과 소통의 장을 펼쳤다. 지난 영등포구청 직거래장터에서는 전국적인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영암 고구마, 방울토마토, 대봉감 말랭이를 비롯한 잡곡류, 콩, 팥, 전통된장, 채소류, 발효된 민들레 전액 등이 인기를 끌며 판매됐다.

이날 직거래장터에는 영암장터영농조합법인, 영암농협, 기찬원들레영농조합법인이 함께 참여했고 약 1천1백만원 상당의 판매수익을

올렸다.

영암군 관계자는 "1995년 10월 17일 영등포구청과 자매결연관계를 맺어 매일 마지막주 화요일에 영암 농부와 영등포구민이 함께 참여하여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를 통해 영암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특히, 영암군과 영등포구청간의 소통과 상생의 내실있는 결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매년 강진군 영랑생가에서 열리는 영랑문학제가 올해 15회를 맞이했다. 영랑생가 뒤편에는 세계질 내세 모란을 즐길 수 있는 모란공원이 지난해 개장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 모란 향에 젖은 '영랑의 시혼'

강진군·(사)영랑기념사업회, 내일까지 감성여행 개최

'찬란한 슬픔의 봄'을 노래한 모란 시인 김영랑이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온다.

강진군과 (사)영랑기념사업회가 김영랑의 시정신과 민족혼을 기리기 위해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영랑생가 일원에서 제15회 영랑문학제 및 세계모란공원 감성여행을 개최한다.

영랑문학제 및 세계모란공원 감성여행은 김영랑이 살았던 당시 사회상을 재현한 거리극으로 서막을 연다. 이후 영랑시문학상 시상 및 축하공연과 청자 전시·판매, 모란화분 전시·판매, 차와 시의 어울림, 아나바다, 영랑시집·기념품 판매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진다.

27일 첫날 오후 1시부터 복지는 동동구무장수가 이끄는 '1930년, 다시 찾은 영랑의 봄'을 주제로 한 거리극에 영장수와 모던보이, 일본 순사들이 행렬을 이뤄 관객들의 추억 샘을 자극한다. 이어 4시 영랑생가 특설무대에서 갖는 개막식에 올해 영랑시

문학상 수상자인 고재종 시인과 영랑의 전기 동화를 쓴 김옥애 작가의 시인회가 열린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세계모란공원 감성콘서트를 비롯해 강진의 모든 사물을 꽃의 인문학으로 풀이한 사진전과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축제 이튿날에는 제15회 전국 영랑백일장과 전국영랑시낭송대회가 오전 10시부터 영랑생가와 강진아트홀에서 진행된다. 올해는 관람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당일 심사 발표 및 시상할 계획이다.

시문화과기념관 김진기 관장은 "화사한 봄 모란이 피는 계절에 15회 영랑문학제 및 세계모란공원 감성여행을 열게 되어 기쁘다"면서 "1930년대 사회상을 재현한 특별한 행사부터 각종 버스킹 공연은 물론, 평소 만나기 힘든 작가들의 시인회가 열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제37회 전국대나무공예대전 수상자 발표

웅·복합제품 분야, 유치호·김기표씨 작 미니커플 찻상 대상

담양군이 올해 '제37회 전국대나무공예대전' 대상 수상을 발표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대전에서 웅·복합제품(일반인) 분야로는 유치호·김기표 씨의 출품작 '미니커플 찻상', 실용디자인(대학생) 분야로는 이해인·변경식 학생의 '다각형 스탠드'가 각각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근 한국대나무박물관에서 진행된 본 심사에는 학계, 전문가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참여해 총 출품작 69종 147점에 대해 실용성, 창의성, 상품성, 조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총 53점의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김재현 심사위원장(백제에술대학 교수)은 "웅·복합제품(일반인)분야 대상을 받은 '미니커플 찻상' 제품은 현대적인 트렌드와 디자인이 잘 반영된 대나무공예 창작품이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용디자인 분야에서는 신선한 아이디어와 반짝이는 창의력이 돋보였으며, LED 조명이나 신소재들을 활용한 점은 현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어울리는 융합제품이 될 수 있는 작품이다"고 밝혔다.

웅·복합제품(일반인)분야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무총리상과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최우



수상에는 장성원 씨의 '대나무 장난감'이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우수상에는 황미경·임정환 씨의 '채천년으로의 여행'과 서석근 씨의 '폐백석작'이 선정돼 각각 군수상과 시상금 100만원을 받게 됐다.

이준러 장려상은 노금행 씨, 이재호 씨, 김영관 씨, 박효숙 씨, 허무 씨, 고광록 씨가 받는 등 특선·입선자 모두를 포함한 총 25명에게 수상의 기쁨이 돌아갔다.

한편, 대학생 실용디자인 분야에서는 신선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디자인이 돋보인 이해인·변경식 학생(서영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의 공동작 '다각형 스탠드'가 대상에 선정, 군수상과 함께 15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됐다. 최우수상은 김정민·김주원 학생의 '대나무 1인 식기세트', 우수상은 조성규 학생의 '가나대나무선반'과 김나운 학생의 '대나무펜더 미니선종기'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군수상과 100만원의 상금이, 우수상에는 군수상과 7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 곡성군, 안전한 자전거 타기 홍보 캠페인

곡성군은 올해 달라지는 자전거 관련 제도 안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곡성경찰서(서장 양동재)와 협력하여 '안전한 자전거 타기 홍보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국 각지에서 모인 160여 명의 자전거 투어단이 참여한 '2018 곡성 자전거 투어'에서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곡성경찰서와 모범운전자협회의 협조 아래 투어 역시 안전하게 마쳤다.

이번 캠페인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차별 강화(20만 원 이하의 벌금)',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금지' 등의 법 개정 세부내용을 자전거 이용자와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실시한다.

군은 달라진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없는 자

전거타기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며, 또한, 곡성경찰서와 모범운전자협회, 자전거 동호회와 협력하여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노약자와 어린이 등에 대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을 추진해 나간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군민자전거 단체보험 가입과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군 홈페이지, 동약소식지, SNS와 주요 자전거 도로변의 홍보 전광판 게시대 등을 활용하여 자전거 이용 시 주의사항을 집중 홍보?계도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하여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팸플릿을 제작하여 자전거 이용자 및 군민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곡성=김광휘 기자

## 해남군,소보정용자동목걸이 지원 축산농가 호응

해남군은 축산농가의 일손절감과 효율적인 소 사육을 위해 보급한 소 보정용 자동 목걸이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올해 1억 8000만원을 투입해 관내 106개 축산 농가에 3134개의 소 보정용 자동목걸이를 보급하고 있다.

소 보정용 자동목걸이는 간단한 개폐장치 조작으로 소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로 예방백신 접종이나 인공수정 채혈, 질병 예방 때 축산농가의 부상을 막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사료 배급 시 체질별 균분한 사료 섭취를 통해 성장률을 높이고 인공수정에 의한 스트레스 감소 등 전반적인 개체관리가 가능해져 안정적 축산물 생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최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 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